

유럽집행위원회, 코로나19 팬데믹 전환계획 제시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◇ 2022년 4월 27일, 유럽집행위원회(EC)의 보건 및 식품안전 위원장인 Stella Kyriakides는 코로나19 관리 및 미래 팬데믹 대비계획에 대한 큰 윤곽을 제시함.

◇ 추진 배경

- Kyriakides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코로나19의 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,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함.
-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백만 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나, EU 백신 전략 및 공중 보건 조치의 성공으로 입원 및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고, 여름철에 역사적으로 감염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지금이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임.
- 팬데믹 전환 계획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부스터 지속 관리, 코로나19 및 기타 질병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, 의료 시스템 복구, 새로운 SARS-CoV-2 변종에 대한 테스트 전략 변경 및 모니터링,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대처 등이 포함됨.

◇ 주요 팬데믹 전환계획

① 첫째, 바이러스의 확산을 모니터링하는 방식 변화, 감시 및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조정

- 대량 검사 대신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전염 강도, 중증 질환의 영향 및 백신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추진
-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를 다루는 모든 급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연중 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
-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EU4Health 프로그램을 통해 ECDC와 협력하여 통합 및 디지털화 된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, EU 전역의 실험실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새로 출현하는 변종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

② 둘째, 코로나19 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사례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- 여기에는 병원 수용력과 필요한 경우 테스트 노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준비가 포함됨.

③ 셋째, 백신 개발, 예방 접종 및 부스터 캠페인을 위한 노력 계속

- 연구자들과 백신 제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감염에 대한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추진
- 또한, 차세대 백신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. EU-FAB 이니셔티브에 따라 유럽에서 mRNA, 벡터, 단백질 등 서로다른 백신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음.

④ 넷째, 전반적인 팬데믹 대비 강화

- 전 세계적으로 COVID-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. 공급망 이외에 글로벌 예방 접종과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여 다른 대륙의 예방 접종 범위를 늘리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.
- 또한 코로나19 감염자의 10%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롱 코비드(Long-COVID)와 같은 구조적인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집중해야 하며, 예방 접종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다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

〈참고자료〉

1. European Commission outlines preparedness plan for COVID-19 management, future pandemics, RAPS, 2022.4.27.
2. Speech by Commissioner Kyriakides at the Press Conference on COVID-19 - Sustaining EU Preparedness and Response: Looking ahead, European Commission, 2022.4.27